

협회소식

본회, 제3차 이사회의 및 비대위 개최

- 거창지부 설립 승인, 직제규정 일부 개정, 돼지고기 수입대응책 논의



본회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1시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금년도 제3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전동용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의는 ▲ 신규지부 설립승인(안) ▲ 직제개정(안) 승인 ▲ 돼지출하제도 운영(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의는 경남 거창지부(지부장 : 김병수, 회원수 41명)의 지부설립을 승인하는 한편, 제2검정소가 신설됨에 따라 「검정소에는 소장 밑에 제1검정부장, 제2검정부장 각 1인을 둔다」는 조항을 「검정소에는 제1검정소장, 제2검정소장을 두며 소장 밑에 각 검정부장을 둔다」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사회의는 또, 서울지부에 위임해 실시하고 있는 돼지출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이에 따른 세부방침을 강구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취약한 산업구조속에서 UR협상이 타결되면 농업생산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때 일수록 양돈인들은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국내외 여건변화를 유리한 산업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는 이사회의가 끝난 후 회장단, 임원, 비상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협회입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돼지고기 수입은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관계기관에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또 비대위는 9월 4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본회,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 수입재개는 양돈생산기반 붕괴 조치 강력 비난

본회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대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회는 지난 8월 28일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최근 일시적으로 상승한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물가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본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작년에 돼지가격의 폭락으로 40%의 양돈농가가 빚어져 도산할 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수입을 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회는 또, 「현재 양돈농가들은 UR협상 진행에 따른 수입개방압력과 축산분뇨단속, 인력난 등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국내 양돈생산기반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회는 정부에 대해 돼지고기 수입재개에 앞서 돼지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 배합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 ▲ 축사자동화시설 자금, 축산분뇨 처리자금 등의 보조 또는 장기저리 대폭 지원 ▲ 돼지고기 자금도 제시 및 전업양돈농가의 육성 지원 대폭 강화 ▲ 돼지고기 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 영세양축가를 무허가건물·분뇨처리문제로 구속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등 5개 항을 촉구했다.<성명서 전문 48쪽 참고>

본회, 「UR농산물 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표

—드주초안 전면 거부, 6개항 정부에 건의

본회는 지난 8월 20일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본회는 이 성명서를 통해 「UR협상이 강대국들의 의도대로 통과되어 축산물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우리 축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드주초안에 의한 UR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국내 농축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UR협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성명서는 UR협상과 관련해 「정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배합사료 등 축산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것」등 6개항을 정부에 건의했다.<성명서 전문은 49쪽 참조>

제2검정소, 첫경매 성황리에 마쳐

—성암종돈, 은성축산, 태화축산 첫 챔피언 배출 영광안아

본회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소재한 제2검정소에서 제2검정소 설립후 첫 경매행사를 개최했다.

이명복·최상백 부회장과 신태식 경남도협의회장,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노영한 전무이사, 여정태 진교면장, 경남북·전남북·충청지역 양도농가 등 3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경매에서는 ·대요크서 7두(우 2두) ·랜드레이스 9두(우 2두) ·듀록 12두(우 3두) 등 총 28두가 상장, 15명의 응찰자가 경매를 벌여 1두가 유찰되고 27두가 낙찰되는 성황을 이뤘다.

경매에 앞서 치러진 기념식에서 최상백 부회장(운영위원장)이 인사말을, 여정태 진교면장이 축사를, 신태식 경남도협의회장이 경과보고를, 김형균 소장이 검정·경매방법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경매에서는 은성축산에서 출품한 듀록 챔피언돈이 최고가인 1백만원에, 성암종돈에서 출품한 대요크서 챔피언돈이 90만원에 경남 합천군의 박영구씨(09농장)에게 낙찰된 것을 비롯, 태화축산에서 출품한 랜드레이스 챔피언돈이 전남 동광양시 성황동의 강용웅씨(오뚜기농장)에게 76만원에 낙찰되었다.

한편 검정돈의 평균성적은 일당중체량 947g, 사료요구율 2.47, 등지방두께 1.81cm, 선발지수 195였으며, 전체 평균낙찰가는 58만5천원을 기록했다.

본회, 농림수산부에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시행규칙(안) 의견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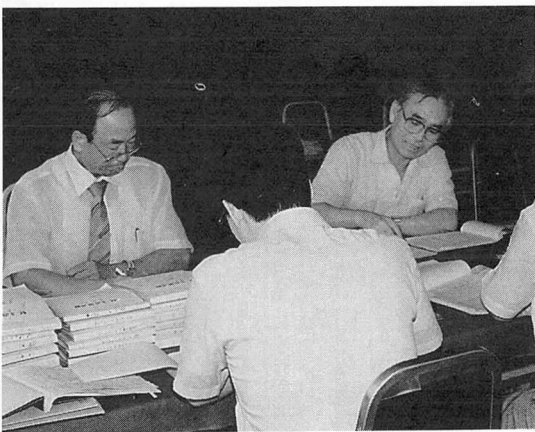
- 자조금운영위에 농민 50% 이상 참여토록 법 제정 건의

본회는 지난 8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확립됨에 따라 자조금제도 운영 및 방법 등에 대한 시행규칙(안)을 마련,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자조금의 운영에 있어서 자조금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농민, 학계,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고,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농민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관련 본회는 자조금의 본래 취지는 농민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최대한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자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본회, 90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



본회는 지난 8월 28일·29일 양일간 '90년도 상반기 협회의 주요 사업실적 및 회무 전반에 걸쳐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본회 박대관, 김관식 감사는 이번 감사에서 '90년도 상반기 협회의 사업계획대 집행실적 및 예산계획대 집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일반사업부문 ▲지도사업부문 ▲홍보사업부문 ▲검정사업부문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박대관, 김관식 감사는 29일 제1검정소 현장감사도 한데 이어, 곧 제2검정소를 방문, 제2검정소 현장감사도 할 예정이다.

제1검정소, 검정돈 경매 성료

송파농산의 듀록챔피온 1백80만원에 낙찰

본회 제1검정소의 72차 검정돈 경매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에 소재한 동검정소에서 성료됐다.

대요크셔 17두(우 3두), 랜드레이스 17두(우 7두), 햄프셔 1두, 듀록 19두(우 3두) 등 총 54두가 상장된 이날 경매에서는 32명의 응찰자가 경합을 벌였으나 전체적으로 종전보다 대체로 낮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날 경매현황을 보면, 송파농산에서 출품한 듀록(♂) 챔피온돈(일당증체량 1,173g · 사료요구율 2.25 · 등지방두께 2.24cm · 선발지수 222)이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의 광학용씨에게 최고가인 1백80만원에 낙찰된 것을 비롯, 덕원농산에서 출품한 대요크셔(♂) 챔피온돈(일당증체량 1,111g · 사료요구율 2.28 · 등지방두께 1.77cm · 선발지수 223)이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의 원종억씨(원일농장)에게 1백30만원에 낙찰되었다.

이날 상장된 검정돈의 평균능력은 일당증체량 943g · 사료요구율 2.38 · 등지방두께 1.83cm · 선발지수 199를 기록했다.

한편 품종별 평균낙찰가는 대요크셔 54만5천원, 랜드레이스 52만4천원, 햄프셔 60만원, 듀록 64만1천원이었으며, 전체 평균낙찰가는 5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광양지부장에 서병호씨

광양지부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지부사무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개편을 위한 임시총회를 갖고, 임기만료된 최길남 지부장 후임으로 서병호씨(52세)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서병호 지부장은 순천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11년간 교사생활을 했으며, 75년부터 용곡농장을 경영해 오고 있다.

광양지부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고문 : 조태규
- ▲ 지부장 : 서병호
- ▲ 부지부장 : 권동구, 양보석
- ▲ 총무 : 서문석

- ▲ 감사 : 강용웅, 김만호
- ▲ 운영위원 : 정성규(사업부장), 김정오(질병분과위원장)

안양시흥지부, 창립 2주년 기념행사 가져

안양시흥지부(지부장: 김찬채)는 지난 9월 1일 부동반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부활성화를 위한 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다짐했다.

이날 회원들은 기념행사가 끝난 후 지역양돈관계자들과 회원 상호간의 친선을 위한 체육대회를 갖는 등 단합된 힘을 재확인 했다.

■ 협회단신 ■

본회 인사발령

본회는 9월 1일자로 홍보부의 이종길대리를 과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본회는 또 지난 8월 6일자로 지도부에 박종덕씨(영남대 축산과 졸업), 홍보부에 강성호씨(조선대 무역학과 졸업)·황선희씨(한양여자전문대 졸업)를 수습직원으로 채용했다.

한편 지도부의 최승덕 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8월 17일자로 의원면직되었다.

안성지부, 사무실 이전

안성지부(지부장: 김인범)는 7월 27일 아래 장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 ▲ 주소 : 경기도 안성읍 인지리 361-1(안성축협 인동지소 3층)
- ▲ 전화번호 : (0334)2-3264(종전과 동일)

협회가임을 축하합니다.

대한양돈협회 임직원 일동

- ▲ 포천지부 : 유재승
- ▲ 대전지부 : 김갑성, 김명진
- ▲ 광주지부(전남) : 김재철, 임승헌
- ▲ 상주지부 : 김용기
- ▲ 경주지부 : 김영근